

# 개인의 완성이 곧 세계의 완성

스승은 제자가 화두를 들면서 어디엔가 매달리고 의지하면서 조금이라도 분별을 낸다면 그 분별의 근거를 여지없이 무너뜨려 그것을 박탈해 버린다. 스승은 제자가 어떤 분별과 미세한 알음알이에도 속지 않도록 화두를 들고 은산철벽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 한 번에 대견성(大見性)하기는 힘들다면서 보우 선사(보우선사)의 예를 들었다.

“태고보우 선사는 이곳 상원사 선원에서 초견성(初見性)을 하고 감로사에 가서 이차 견성을 하시는 등 네 번에 걸쳐 견성을 하고서 대오(大悟)를 했어요. 스승이 없는 사람은 초견성을 하고서 깨달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람은 의도로 빠지기 십상이지. 그것은 자신을 망치는 길입니다.”

의정 스님은 당신의 경험담을 들려주었다. “처음 경계에 부딪혔을 때 너무 큰 환희심이 났어요. 스승을 찾아가 막마를 해야 하는데 내 경지가 너무 수승하다고 여겨 그때는 스승의 말을 부정했어요. 그러다 상기병에 걸려 아주 고생했어요.”

상기병에 걸리면 기(氣)가 위로 올라와서 머리가 깨질듯이 아픈 증상이 나타나는데, 의정 스님은 수행자는 모든 것을 인내해야 한다는 생각에 더 열심히 수행에 전념했다. 나중에는 멍차기 막혀서 밥을 먹지 못해 몸이 장작개비처럼 마르기 시작했지만, 부처님의 육년 고행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면서 계속 정진했다. 결국은 피를 토하면서 쓰러졌다. 스님은 자신이 상기병인 줄도 모르고 죽기 살기로 공부에만 매달린 것이었다. 급기야는 생명줄을 놓아वाल 만큼 위급해서야 송담 스님을 찾아가더니 상기라고 하더라. 상기병은 별다른 치료방법이 없다. 일본의 백은 선사가 연소호흡법으로 상기병을 치료했음을 알고 스님도 연소호흡법으로 병을 다스렸다. 그 세월이 십년이라고 하니 스님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감히 짐작하기가 할 수 있으리라 싶다.

“화두 공부는 거문고 잘 타듯이 조화롭게 해야 합니다. 본심이 확 일어나면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공부하게 되는데, 그러다 기가 위로 올라오는 등 병이 나지요.”

몇 생에 걸쳐서 경험할 것을 한 생에서 경험한 뜻인지 공부에 대한 스님의 생각과 열정은 남다르다.

“간화선의 생명은 화두 의심인데, 화두 공부는 발심한 만큼 화두 의심이 생깁니다. 발심을 한 사람에게는 화두 의심이 쉽지만, 발심이 안된 사람에게는 어려워요. 발심이 부족하다라도 꾸준히 계속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깊은 의심이 일어나서 공부에 진척이 있습니다.”

계곡의 물소리는 스님의 거처까지 차고 들어왔다. 물소리와 더불어 솔바람이 불어오고 향기로운 차를 앞에 두고 있으니 이 순간 세상 부러운 것이 없다. 요즘은 사회의 큰 문제로 떠오르



고 있는 청년실업에 관해 여쭙었다.

“삶을 살다보면 우리 생은 흥망성쇠가 계속되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아도 때로는 흥하다가 때로는 쇠하는 흥망성쇠의 연속입니다. 이러한 현상계에 집착하면 더 괴롭지요. 경제대란이 일어나서 받는 고통은 크겠지만, 젊은 사람들이 뜻이 크면 다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옛 사람들은 흥년 들면 죽 먹고 풍년 들면 밥 먹고 그렇게 살아도 마음 편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인간의 최고 가치를 물질, 명예, 쾌락 등 낮은 것에 두기 때문에 고통이 더욱 큼니다. 첫째는 뜻이 원대해야 합니다. <금강경>에 보면 수보리존자가 ‘보리심을 낸 사람은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합니까?’ 라고 묻는 구절이 있어요. 부처님은 우리 마음을 사심(四心)에 두라고 하셨어요.”

사심이란 대심(大心), 광대심(廣大心), 상심(上心), 부전도심(不顛倒心)이다. 대심은 일체 중생들을 다 제도하겠다는 마음이고, 광대심은 일체 중생을 무열반으로 이끌어주겠다는 것이며, 상심은 그러한 마음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부전도심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의 마음을 사상(四相: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걸리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사람은 어디다 뜻을 두느냐에 따라서 행복의 척도도 달라지고 삶의 질도 달라져요. 자기의

부귀영화와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그런 사람은 평생 가도 마음의 평정을 한 번이라도 느끼지 못할 겁니다. 사후세계를 한 번 보세요. 중생을 다 제도 하겠다, 불도를 다 이루겠다, 그 뜻이 얼마나 큼니까? 자기 안위를 위해서 수행하거나 화두 참선한다면 공부 안 되요. 불법(佛法)은 장마 때 소나기 오는 것과 같은데 작은 뜻을 가지고 공부한다면 소나기 올 때 자기만의 간장종지를 가지고 비를 받는 것과 같아요. 뜻이 적은 사람은 바람에 날라가는 나뭇잎처럼 흔들리고 늘 괴로워하고 방황하지, 뜻

이 큰 사람은 바람 불어도 태풍 불어도 끄떡 없어요. 자기의 뜻이 큰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를 닦아갑니다.”

의정 스님은 ‘개인의 완성이 곧 세계의 완성’ 이라면서 스님들이 자기 개인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참보살이란 ‘끊임없이 수행에 전념하고 세상에 머물면서도 세상에 탐착하지 않고 또 성인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열반에 들지 않고 늘 중생을 생각하는 것’ 이라 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산중에서 대사회적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비난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참으로 모르는 말입니다. 선을 한다는 것은 하화 중생을 전제로 한 상구보리입니다. 내가 빨리 공부해서 이것을 사회와 중생들에게 회향하겠다는 마음으로 수행에 전념합니다. 장님이 장님을 안내한다면 올바른 길잡이가 될 수 없듯이, 중생 사회에 더 큰 것을 선물하고 싶기 때문에 그때를 기다리면서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성은 작용하는 그곳에 있으며 두루 나타나면 항하사(恒河沙) 세계에 고루 퍼지고, 거두어 들이면 한 티끌에 들어가는 것이라 했다. 저마다 지닌 불성을 크고 좋은 그곳에 담아서 잘 쓰고 있는지를 한번쯤 뒤돌아 볼 일이다.

글·사진=문운정(수필가·본지 논설위원)



##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禪

### 55. 제헌 국회의원 이종욱 큰스님

지암 이종욱(智庵 李鍾郁, 1884~1968) 큰스님은 동국대 이재창 교수님의 아버지이다. 고성 국회의원의 최갑환씨와 함께 제헌 국회의원으로 유명했기 때문에 월정사 스님 보다는 국회의원이 종욱씨로 더 많이 알려져 있다.

강원도 양양 출신으로 본 이름은 이응윤이고, 호는 지암, 아호는 해광·해운·고경이다. 태어난지 13일 만에 어머니를 잃어 6세에 양어머니를 정해 갔으나 이듬해 양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다 돌아가시자 계모 밑에서 자랐다.

1896년 13세에 양양 명주사 백월 스님 영향으로 득도하고, 1906년 명진학교에 입학했다. 1908년 설악산 백담사 오세암에서 절경 스님의 법을 잇고, 한일강점 후 월정사에 들어가 조각인들에게 배웠던 30여 정보의 발과 5000여 정보의 산을 찾아 주



### 상해 임시정부서 활약... 평생 화내지 않으며 '자리아타' 지켜

었다. 모두 이것은 용문사 천장사 동학사 선안사 범어사 통도사 건봉사 대승사 법주사 등에서 내전을 익힌 힘이었다.

필자와의 만남은 1962년 강원도 원주 불심원에서였다. 초종파 범불교운동으로 강성준 스님에게서 불심원을 만들었는데, 낙성식에 당시 유명한 고승들이 많이 참석했다. 나는 기산 스님과 김동화 박사님, 그리고 권상로 박사님을 모시고 갔는데, 종재가 잘 생기신 분이 거동을 잘 하지 못해 누워계셨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빠짐없이 인사를 하고 문안했다. 그때는 이미 스님께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주문전에 동명사를 짓고 포교하실 때다. 몸은 불편했으나 말씀은 잘 하셨다.

“내가 1917년 조국광복을 위해 상경해 2·7결사의 대원으로 활약하다가 3·1운동 당시에는 인천 율미도에서 이규갑·한남수 등과 함께 임시정부를 수립했

다. 다시 상해로 망명, 임시정부 내무부 참사관, 입법의회 의원으로 활약했다. 이렇게 서울 상해 연락부장을 지내면서 청년외교단, 애국부인회를 조직했다가 발각돼 3년 옥고를 치루고 월정사에 들어가 25년간 월정사 주지를 지내면서 1932년 조선불교 중앙

총무원 서무이사로서 피선돼 사실상 31본산 중앙행정을 담당하게 됐다. 1941년 종무총장이 되고, 1950년 강원도 평창군에서 출마해 3회 의원이 되고, 1941년과 1951년에는 동국대학교 이사장을 지냈다.”

그때 어떤 스님이 말씀했다. “세상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스님께서 1944년 강태동, 유석원 등과 회동해 미군이 제주도에 상륙할 것을 예측하고 무장봉기를 획책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때, 그때 일본군이 예상외로 빨리 항복했기 때문에 실현되지 않았지.”

스님의 두 눈에서는 불이 번쩍했다. 그러나 지금 와서 생각하면 모든 것이 꿈이었다. 어머니께서 일찍 돌아가시고 양자가 됐던 것도 꿈이고, 다시 계모 밑에서 성장했던 것도 꿈이고, 열세살에 절에 들어와 사찰 이력을 마치고 일본 유학을 했던 것도

꿈이고, 독립운동을 하면서 월정사 전담(田飮)을 찾아 주고 국회의원을 한 것도 꿈이고, 상해에 들어가 연통제를 조직해 조국광복운동을 했던 것이나 국회의원을 하면서 국정을 좌지우지 했던 것도 꿈이었다.

“사람들은 내 종재만 보아도 기가 질려 말도 잘 하지 못했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이 무거운 몸뚱어리를 이리 두치고 저리 두치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것이 제행무상(諸行無常)이고 제법무아(諸法無我)가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낙성식 법회에 갔다가 진짜 이종욱 스님의 진심이 어린 법문을 듣고 감동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돼 백성들의 억울한 일을 밝혀주고 나라의 답답한 일을 풀어주었지 않았나 생각했다.

나는 여러 스님들에게 그런 말씀을 들었다.

“이 스님은 평생에 화를 내지 않는데, 무슨 일을 하든지 자리아타(自利利他)거든.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하니 모든 일이 풀리지 않을 수 없어.”

그렇지만 스님을 에워싸고 있는 주위 환경이 좋아야 위신이 서게 돼 있다. 내가 월정사 수도원에 있을 때 스님의 가까운 친척 되는 분의 자제가 수도원 학생과 인연이 돼 아기가 생김으로써 모처럼 계획했던 월정사 수도원이 풍물을 뒤집어쓰고 폐지되는 난국을 겪게 됐으니, 그 모든 업장이 스님에게 돌아갔던 것이다.

나는 대학 2학년 때 이제창 교수님에게 ‘사원 경제사’와 ‘영오 천축전’을 배웠는데, 그분이 저렇게 훌륭한 스님의 자제인 줄은 미처 몰랐다. 대처·비구 분장 때문에 많은 불교인재를 잃었지만, 그가 아버지의 정신을 계승해 불법으로 회향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했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원인종 요가마을

**민속죽염** 21년 전통

조상의 열과 온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응축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분**  
가 루 자색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자색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자색죽염 125g 30,000원  
알갱이 자색죽염 230g 55,000원

**2번 구분**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0,000원  
(음식조리용·양치용·피부미용)  
기본 배송비 2,500원 (5만원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 부산지역은 부산농협 각지점 “신도봉이 배냇” 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주문전화 : 053)985-1135 / 054)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ij.co.kr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테트형강판, 사철(대우전, 요사채, 산신각), 슬라브, 창고, 공장, 가정집 (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1-327-7697  
전라도 : 010-2311-0157

현대 칼라지붕공사

한국 불교 최고의 신문!

현대불교신문사 총청지사는 **최고**를 지향합니다

불교의 소식을 가장 빠르게 보도하는 현대불교신문은

연협뉴스, 뉴시스, 충청뉴스, 한국불교신문, BBS 청주불교방송, HCN 충북방송, 충청권 일간신문(충북일보, 충청매일, 충청타임즈, 중앙일보, 중부매일, 충청타임즈, 대전일보)에 실시간으로 기사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현대불교신문사 총청지사  
대전, 충청, 충북

+ 사찰의 법회, 행사 취재 보도  
+ 사찰의 홍보 및 광고  
+ 신문사(통신사)에 기사작성 제공 (연협뉴스, 뉴시스, 충청뉴스)

제보, 구독, 광고문의

• 충북지사 : 043-732-5560 • 대전지사 : 042-223-8214  
• 지사장 : 010-9522-8453 (혜철스님) / E-mail : ksson108@hanmail.net  
• 기자 : 010-5078-9748 (이한배 기자)

현대불교신문 1인1부 구독하기 운동에 동참합니다.  
최고를 지향하는 총청지사가 되도록 저희 임직원 일동은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독료는 지동이체를 신청 하시면 편리합니다. (통장번호 / 주민번호 / 주소 / 연락처)

현대불교신문 총청지사